#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센터의 발전방안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of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in Local Governments

기 민 정*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측면
Ⅲ.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및 예산 방향
Ⅳ.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사업현황
Ⅴ. 농업기술센터의 지역사회 역할 증진방안
Ⅵ. 요약 및 결론

## Ⅰ. 서론

소비자의 기호가 농산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소비행태에 있어 개성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과 기능성 등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인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즉시시스템(Just-In-Time System)의 전략적 사고에 의하여 백화점, 할인마트, 공영도매시장 등지에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같은 농업인의 신선 및 가공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공급체인시스템의 합리적인 관리와 유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의 수용과 영농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런데, 농업인의 신기술 및 영농기술의 도입은 선진농업인 만이 경영전략에 의하여 농업기술개발비를 부담한 뿐 중진농업인이나 후진농업인은 국제사회의 변화나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공익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시대적 변화인 소비자 및 생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시간강사

산자의 욕구를 기민하게 받아들여, 이를 생산활동에 반영하고 농업기술을 개발하며, 새로운 품질관리 및 저장·가공을 통하여 상품화를 위한 기술노하우를 모색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농업정책 수립집행과 농업의 생산활동 및 생산자단체의 활동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 사업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역농민의 반응을 통하여 지역농업기술센터의 변화를 갈망하는 농업인의 견해를 모아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시스템의 변화를 통하여 21세기에 지역농업의 변화방향을 살펴보고 각 시·군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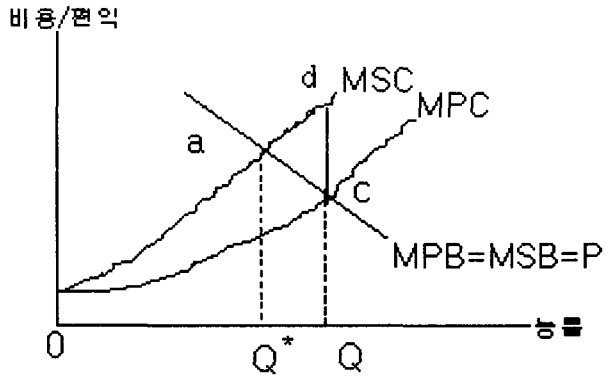
## 1. 농업기술센터의 공익적 편익

농업생산활동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농업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업생산의 비효율성과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영농기술의 보급으로 인하여 농촌사회에 큰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한계편익(MPB)과 사회적한계편익(MSB)의 차이는 없게되어 사회적 한계편익이 곧, 생산물의 가격이 되어왔다.

영세농과 전업농에서 농업생산을 위하여 지불되는 한계비용은 농업을 수행하는 영세농 및 전업농의 생산비용인 사적한계비용(MPC)이다. 또한, 전업농 및 영세농의 생산활동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함으로 발생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사회가 부담하는 외부한계비용(MEC)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비용(MSC)은 사적한계비용(MPC)와 외부한계비용(MEC)으로 구성되다.

농업생산에서 영농교육이나 농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생산 능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한계비용곡선(MSC)은 농민의 사적 한계비용곡선보다 위에 있으며, 전업농이나 영세농은 사회적 한계편익(MSB)까지 생산하려하기 때문에 사회적 한계편익이 가격이 된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생산능률은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인 Q*가 될 것이다.

<그림 1> 공익적 편익




농림부에서는 농업정책을 그동안의 자급생산을 바탕으로 한 생산증대 정책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보급하거나 휴경농법으로 그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정책에서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한계비용이 차이가 있다면, 농업인은 사적한계비용과 사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Q까지 생산하려할 것이다. 이는 기업농이나 영세농의 농업소득의 증대방법으로 농업인은 농산물가격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주어지지않기 때문에 산출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하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센터의 사회적 한계비용(MSC)곡선은 농업기술센터의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농업인의 사적 한계비용(MPC)에 농업기술센터의 관리 및 운영비용이 계산되어있다. 농산물 생산의 상대적 과잉에 대응하여 정부인 농림부에서는 농산물 생산량의 절대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최대한 줄여 Q와 Q*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찾으려할 것이다.

## 2. 농업기술센터의 비공익적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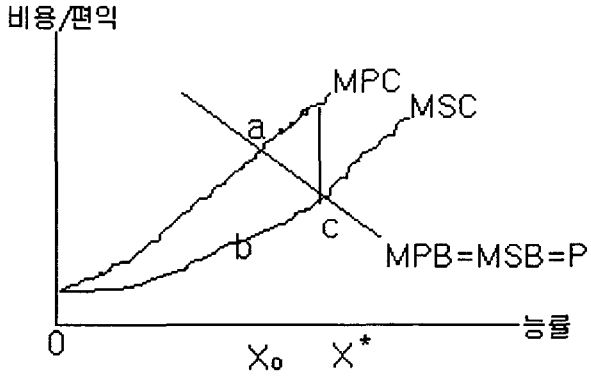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지불하고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비공익적 한계비용곡선(MPC)은 사회적 한계비용곡선(MSC)보다 높다. 사적인 측면에서 농업생산을 수행하는 영세농이나 전업농은 사적 한계비용이 가격과 같은 수준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사적 공급곡선 즉, 사적 한계비용곡선은 사회적 한계비용곡선 보다 낮다.

이때, 농업기술센터의 사회적 한계비용곡선(MSC)은 사적 한계비용곡선(MPC)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관리 및 비용을 제거하고 계산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비공익적 한계생산비(능률) 정도에 따라 효율적인 농업기술교육 및 영농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적 한계편익이나 사적 한계편익에 따른 사적 한계비용(MPC)과 만나는 Xo(그림 2), Q(그림 1)에서 생산에서의 효율과 능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의 공익적 측면에서의 영농기술교육 등의 활동과 비공익적 측면에서의 농업기술교육 등의 활동은 능률과 효율의 극대화라고 고려되는 최적 능률과 업무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접점(그림 1과 2)은 사회적 한계편익이나 사적 한계편익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X*와 Q*가 될 것이다.

<그림 2> 비공익적 편익




따라서 비공익적 측면에서의 농업기술센터는 적정한 능률생산량(X*)보다 낮은 Xo만큼의 효율과 능률의 저하가 이루어져 △abc정도(그림 2)의 능률과 효율의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공익적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는 △acd만큼(그림 1)의 효율과 능률이 과대하게 되어 사회적 잉여가 나타나 사회적 효율성은 감소하게 된다.

공익적인 농업기술센터로 인한 낮은 효율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유인책과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적정능률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익적인 농업기술센터를 사적인 농업기술센터로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데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때에 농업기술센터의 서비스 수준으로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농업생산활동에서 농업인에게 농업기술이전 및 영농교육의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업기술교육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기술교육과 교육을 통한 농업수익의 극대화를 농업인이 추구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익사업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이므로 영농기술보급 및 영농기술교육을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는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에서 농업인이 말하는 욕구와 말하지 않는 욕구 그리고, 농업인에게 기쁨을 주는 욕구와 비밀스런 욕

구, 실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다.

# Ⅲ.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및 예산 방향

## 1. 부서별 업무수행에 따른 분류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는 지도기획, 환경농업, 인력개발, 생활환경 담당의 4개부서로 구성되어있다. 그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농촌지도업무 기획 및 전문지도인력관리, 지도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환경농업 및 식량작물 기술보급, 농업인교육, 학습단체육성, 전문농업인육성, 생활개선회육성, 여성농업인교육,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추진업무인 직접서비스를 살펴보면, 모든 업무가 업무계획에 의하여 담당부서별로 능률과 효율성을 가지고 성실히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의 업무에 있어서는 중복 및 중첩현황과 아울러 농업기술지도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떤 계층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교육과 기술교육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업무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였을 때,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을 찾아본다.

인력개발담당부서의 업무 21가지 가운데에는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농업인조직의 육성 분야가 6개분야로 중첩되고 있고, 영농교육도 9개분야이다. 그 외 전문경영능력배양교육이나 선도개척농 및 경영체육성분야는 경영정보담당분야와 업무가 중복되고, 농업기계의 실수요자교육 및 부녀자교육, 한국농업전문학교신입생선발 추천 및 현장교육 등은 농업인의 자율적 의사에 수반한 교육이나 기계화영농단 등에서 스스로 기술습득을 하여야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된다.

생활환경담당부서에서는 농업인의 가정에 없어서는 안될 부서이다. 그러나 산업사회 가운데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까지도 농촌에 사는 가정생활의 자율성에 행정의 관여에 대해서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식생활정착지도, 가정경영지도, 주거환경개선, 생활환경보전 및 기타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농산물가공조리기술, 건강관리지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여성의 정책관련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이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여성의 조직육성 및 지원분야는 인력개발담당과 중복되고 농촌여성의 소득증대사업지원은 과수·화훼·경영정보담당분야에서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업무이다.

과수·화훼담당부서와 채소·특작담당부서에서는 업무는 대부분 병충해방제 및 재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은 농업인은 매년 새로운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농업인은 생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르쳐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르쳐주면 시행하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귀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혀 농업을 모르는 사람이 농업기술교육을 받는지 의문이다.

<표 1> 담당(부서)별 직접서비스

| 담 당 (부 서) | 업 무 명 |
|---|---|
| 지도기획담당 | · 농업인과 대화의 날 운영, · 명예농촌지도사 영농상담<br>· 농업기술홍보: 인터넷, 신문, 마을방송, · 인쇄물 시청각교재 발간 및 배부 |
| 환경농업담당 | · 벼, 밭작물 우량품종공급, · 식량작물 재배기술 시범사업<br>· 벼농사 생력 및 고품질 재배기술보급, · 병해충 종합진단실운영<br>·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종합관리, · 농작물 병해충 임상진단<br>· 농가 농약사용 실태조사, · 농약안전사용 기술보급, · 종합검정실 운영,<br>· 농작물 시비개선 기술보급, · 밭토양 정밀검정 |
| 인력개발담당 |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여름철 영농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육성 및 지도<br>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조직육성, 지역특화작목 상설교육<br>전문경영능력 배양교육, 후계농업인, 기타 전업농교육<br>농업인 영농공개강좌 및 교육, 귀농인육성지도, 산업기능요원관리육성<br>4-H회조직육성,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 및 기술지도<br>4-H회원과제 및 진로지도교육, 4-H야영 및 현장교육<br>4-H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농촌지도자회조직육성<br>농업기계 실수요자교육 및 부녀자교육, 농업기계부품실관리<br>농업기계순회수리 및 교육반운영, 선도개척농 및 경영체 육성<br>한국농업전문학교 신입생선발 추천 및 현장교육, 기타 인력개발교육 |

자료: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경영정보담당부서의 업무는 주로 농업인의 경영컨설팅과 농업인의 상담, 그리고 전산망의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는 지도기획업무와 중복된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와같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의 중복과 중첩은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의 불만과 업무의 효율성의 저하로 나타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담당업무가 중첩되어 있으니 할 수도 있고, 안해도 다른 담당부서에서 수행되고 있으니 별문제가 없으며, 때를 놓친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수행할 때에 잠깐 보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농촌지도사는 단일 호봉제도로 되어있어서 직급별 승진도 없고, 다른 시·군간의 전출도 없으며, 업무처리에서 다소 실수를 하여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이와같은 무사안일은 농촌지도사업의 무용론과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2002년도 여름철 영농교육에 있어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50%의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벼우량품종공급에 있어서 심청쌀인 화봉벼의 종자확보조차 부족한 실정에서 심청쌀로 화봉벼를 선정하고 있다든지, 특히나 화봉벼는 중생종으로 장려품종이 아님에도 곡성군 특산물로 심청쌀을 홍보하고 있다든지, 또한 심청쌀의 품종의 확정을 위한 시식회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심청쌀이 고급품종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점이다.

문제는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대비한 심청쌀의 공급과 판매가 모색되어야 하는데, 다급하게 심청쌀의 홍보 및 공급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예측과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소비자의 쌀소비에 대한 흐름에 대처하는 방안의 연구가 심도있게 모색되어야한다. 심청쌀의 시장공급에 있어 애향심이나 강매 또는 인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강매나 애향심을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은 위험을 초래한다. 즉,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는 악담을 하거나 생산자나 관련 단체에 불평을 토로할 것이고, 그것은 빠르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담당(부서)별 직접서비스(계속)

| 담당(부서) | 업 무 명 |
|---|---|
| 생활환경담당 | 농촌생활환경 사업계획 및 평가, 전문여성기능인 양성, 여성농업인교육,<br>건전한 가정경영지도, 농촌여성의 소득증대사업지원, 농가주거환경개선<br>농촌생활환경보전, 농업인 건강관리지도, 농작업환경개선 기술보급,<br>한국형 식생활정착지도, 농산물 가공조리 및 저장기술보급,<br>농촌여성 조직육성 및 지원,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br>농촌여성 정책관련 유관단체와의 협력, 여성농업인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br>기타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
| 과수화훼담당 | 과수화훼 재배기술보급, 소득작목 기술지원단운영, 우량과원기술보급,<br>과실생산성증대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과수시설 재배기술보급,<br>과수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조사분석, 과실저장시설 및 기술보급,<br>수출과수생산 및 병해충예찰방제, 화훼생력 및 고품질 재배기술보급,<br>화훼 새기술보급, 과수화훼 시범시업,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보급 |

| 담당(부서) | 업 무 명 |
|---|---|
| 채소특작담당 | 채소특작 재배기술보급계획 수립 및 평가, 시설채소 연중생산 및 생력화기술보급<br>농가보급형 시설하우스 설치 기술보급, 일반채소 재배기술보급<br>채소 우량품종 확대재배, 채소 병해충예찰 및 방제기술보급<br>채소시범사업추진, 수출채소 생산 및 병해충예찰 방제 기술보급<br>산채류재배 기술보급, 버섯재배 기술보급<br>유지작물 재배기술보급, 약용작물재배기술보급<br>특용작물우량품종 확대보급, 특용작물 병해충예찰 및 방제기술보급<br>특용작물시범사업추진, 채소,특용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조사분석<br>뽕밭 비배관리 및 누에사육기술보급, 약용 동충하초 재배기술보급<br>종자피해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조직배양 및 건전묘 생산보급<br>기타 채소·특작에 관한 사항 |
| 경영정보담당 | 농가경영컨설팅사업, 농업경영 상담자료 및 농업용프로그램활용<br>경영진단설계에 따른 경영개선업무, 농업경영체의 경영관리 기술보급<br>농산물가격정보수집 및 분석, 농산물소득조사 분석<br>기술정보전산망 운영관리, 농업인정보화 교육장운영관리<br>농업인상담실 운영 |

자료: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 2. 농업기술센터사업의 예산방향

농업기술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안전한 양질의 신선식품을 국민에게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기술보급으로 지속적 농업의 실현을 위한 환경보전농업기술의 보급이 요청되고 있다. 기술보급의 전제 조건은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농업기술의 보급이 되어야한다. 즉, 농업기술의 보급에 따라 농가의 농업소득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농업기술의 향상이 농가의 농업소득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기술의 채택여부에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은 물론이다.

이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을 위한 사업예산의 기본방향은 첫째, 경제적인 관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나, 경지의 협소 등으로 인한 환경으로 농업인 개인이 규모화사업에 적응할 수 없는 적합하지 않는 사업수행이다. 둘째, 농업인이 대규모의 사업체와 경쟁을 해야하나 농업의 특성상 농업인이 경쟁을 하여도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협동조직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농업인이 농업경영에서 부채의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부족을 안고 있어서 효율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기계사업의 운영에 첫째의 농업예산이 투

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농산물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부패성이 강하므로,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저온저장시설의 운영과 단순가공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에 예산의 투입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농업인은 지역적으로 격리되어있어 영농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상담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대의 지식사회와 정보화사회에 부응한 농사정보, 생활정보 등을 원격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예산의 확충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인 사업예산의 지원은

1. 지역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중앙의 농업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지역농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지역특화기술개발에 지원되어야 한다.
2. 농촌진흥청시험사업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된 기술이나 개발 중인 신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영농현장에서 실증적으로 소득사업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었을 때, 또는 가능성이 높을 때에 실용화를 유도하여야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앙에서 개발된 기술을 받아서 지원하는 체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개발을 위한 시험포를 갖추고 농업인과 현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결과를 가지고 지역 농업인에게 생산, 물류, 판매 등의 기술지원을 수행하도록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3.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국제적인 기호성 식품의 품종육성과 아울러 수출확대를 위한 재배기술의 개발보급 그리고 해외시장의 생산기술 및 판매정보수집 등에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업예산과 집행부분을 고찰하면 각 부서별 예산의 집행은 업무의 형태에 맞춘 지출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의 재조정에 의하여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산의 지원이 농업인의 선진기술보급이나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연수, 농사에 가장 어려워하는 병해충방제, 농업기술의 수준제고를 위한 지원이 매우 빈약하다. 특히 지역특화작목의 기술, 경영정보 등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원이 빈약하고 농업인과 농촌지도사 간의 면담을 통한 상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실정에서 보완을 위한 무선장비나 시스템구축을 위한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 Ⅳ.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사업현황

## 1. 농업기술의 보급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농업인의 이용현황을 상담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표 2>과 같다. 농업기술에 대한 상담자는 37,878명으로 내방자 상담이 6.1%, 전화상담이 5.3% 그리고 농 술센터 직원의 현지상담이 34.3.%, 그룹토론이 53.9%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대한 상담은 3,192명으로 내방자 상담이 20.8%, 전화상담이 18.8%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현지상담이 30.3%, 그룹토론이 33.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농외활동에 대한 상담은 1,147명으로 내방자 상담이 29.1%, 전화상담이 39.1%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현지상담이 36.1%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농업인상담실태

| | 내방자상담 | 전화상담 | 현지상담 | 그룹토론 | 계 |
|---|---|---|---|---|---|
| 농업기술 | 2,324(6.1) | 2,013(5.3) | 12,995(34.3) | 20,402(53.9) | 37,878(100) |
| 농업경영 | 665(20.8) | 601(18.8) | 967(30.3) | 1,053(33.0) | 3,192(100) |
| 농외활동 | 334(29.1) | 449(39.1) | 414(36.1) | - | 1,147(100) |
| 계 | 3,323(7.9) | 3,063(7.3) | 14,371(34.1) | 21,455(50.8) | 42,217(100) |

자료: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따라서 농업경영인은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업기술센터의 직원과 현지상담을 통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아직도 농업인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어려움과 경외감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즉,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아주 친밀감을 갖고있다거나,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다면, 수시로 전화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려워하거나 친밀감이 없을 때는 대면접촉을 하여야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유교적인 범절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서 항상 고민하지않을 수 없다. 새로운 병해충, 농기계의 기종변화, 다양한 농업인의 다양한 농축산물의 생산욕구 등에 대응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그룹토론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인이 현장에서 경험한 실례와 농업인이 기술애로에 처하여 응급처치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농업생산 현장에서 농업정보경영 및 농업지식경영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 2. 농촌후계인력양성

인력개발에 대한 업무는 조례, 규칙, 규정에 의한 업무로 나눌 수 있다.

조례의 1.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육성지도, 2. 농민교육 및 지도

규칙의 1. 새해영농설계 및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2. 품목별 상설교육
3. 농업경영인 전업농교육, 4. 4-H회조직육성 및 교육
5. 농촌지도자회 조직육성, 6. 산업기능요원, 귀농인, 영농공개강좌 등 교육업무
7. 농업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 8. 농업기계부품실 및 순회수리교육반 운영

규정의 1. 인력개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여름철영농교육 3.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 및 지도 4.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조직육성 5. 지역 특화작목상설교육 6. 전문경영능력 배양교육 7. 후계농업인, 전업농교육 8. 농업인 영농공개강좌 및 교육 9. 귀농인 육성지도 10. 산업기능요원관리교육 11. 4-H회조직육성 12.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 및 기술지도 13. 4-H회원과제 및 진로지도교육 14. 4-H야영 및 현장교육 15. 4-H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16. 농촌지도자회조직육성 17. 농업기계 실수요자교육 및 부녀자교육 18. 농업기계부품실관리 19. 농업기계순회수리 및 교육반운영 20. 선도개척농 및 경영체육성 21. 한국농업전문학교 신입생선발추천 및 현장교육 22. 기타 인력개발 및 교육 등이다.

여기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영농현장의 애로기술과 새기술, 정보 및 농정시책 등에 대한 교육으로, 2003년에 실시한 교육내용은 1. 고품질 쌀생산 핵심기술의 중점교육 및 시설원예의 난방비절감기술과 2. 농산물의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생산비 및 유통비용절감을 위한 정보제공과 3.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지식 및 기술향상을 위한 영농설계의 지원이었다. 교육장소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읍·면회관, 농협 등의 37개소에서 10여일간 1,059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수행하고 농업인에게 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설문에 대하여<표 3>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농업인은 669명으로 63.2%를 차지하고,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농업인은 379명인 35.8%로 영농설계교육강좌에 대하여 농업인은 대체로 긍정적임을 보이고 있었다.

**<표 3> 영농설계교육성과**

| | 많은 도움이됨 | 다소 도움이됨 | 도움이 되지않음 | 계 |
|---|---|---|---|---|
| 표본 수 | 669 | 379 | 11 | 1,059 |
| 비율(%) | 63.2 | 35.8 | 1.0 | 100.0 |

자료: 설문조사

이때,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어렵게 여기는 기술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표 4>, 병충해방제가 가장 힘들다는 농업인이 521명으로 49.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판매가 가장 어렵다는 농업인이 332명으로 31.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파종 및 정식·수확작업을 힘들게 여기는 농업인이 109명으로 10.3%이었다. 그리고 영농자금조달이 힘들었다는 농업인은 57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경운 및 정지작업이 어려웠다는 농업인은 40명으로 3.8%를 나타내었다.

<표 4> 농사에서 가장 힘든 분야

| | 병해충방제 | 파종·정식·수확작업 | 경운·정지작업 | 판매 | 영농자금조달 | 계 |
|---|---|---|---|---|---|---|
| 표본 수 | 521 | 109 | 40 | 332 | 57 | 1,059 |
| 비율(%) | 49.2 | 10.3 | 3.8 | 31.4 | 5.4 | 100.0 |

자료: 설문조사

영농설계교육에서 농업인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에 대하여 <표 5>, 병해충교육이 33.2%, 환경농업이 19.8%, 비료주기 7.1%, 고품질생산기술이 39.8%로 나타나 고품질생산교육과 병해충에 대한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농업인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농업인이 교육받고자하는 분야

| | 병해충방제 | 환경농업 | 비료주기 | 고품질생산기술 | 계 |
|---|---|---|---|---|---|
| 표본 수 | 352 | 210 | 75 | 422 | 1,059 |
| 비율(%) | 33.2 | 19.8 | 7.1 | 39.8 | 100.0 |

자료: 설문조사

영농교육에 참석한 농업인의 농사정보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표 6>, 농업서적을 15.8%, 방송 등의 매체를 8.9%, 농업기술센터교육에 70.3%, 농협직원에게 정보를 얻는다는 농업인은 0.6%, 읍·면사무소직원에게 2.1%, 기타 2.5%로 나타나, 농업인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

<표 6> 농사정보의 습득경로

| | 농업서적 | 방송매체 | 농업기술센터교육 | 농협직원 | 읍면사무소 | 기타 | 계 |
|---|---|---|---|---|---|---|---|
| 표본수 | 167 | 94 | 744 | 6 | 22 | 26 | 1,059 |
| 비율(%) | 15.8 | 8.9 | 70.3 | 0.6 | 2.1 | 2.5 | 100.0 |

자료: 설문조사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 <표 7>를 육성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회와 4-H회의 학습단체와 후계농업인, 기타 전업농,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하여 18개의 단체에 1,044명이다.

농업인학습단체를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이 자유롭게 영농경험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세기는 정보·지식경영의 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정보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학습 및 토론을 통한 경험과 지식을 데이터화하여 농업인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영농지식 축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한다.

<표 7> 농업인 학습단체현황

| 합 계 | | 학 습 단 체 | | | | | | 후계농업인 | 기타전업농 | 산업기능요원 |
|---|---|---|---|---|---|---|---|---|---|---|
| | | 소계 | | 농촌지도자회 | | 4-H회 | | | | |
| 단체 | 명 | 회 | 명 | 회 | 명 | 회 | 명 | | | |
| 18 | 1,044 | 15 | 426 | 11 | 276 | 4 | 150 | 561 | 46 | 11 |

자료: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3. 농촌사회개발(생활개선)

생활환경에 대한 업무는 규칙, 규정에 의한 업무로 나눌 수 있다.

농촌생활환경사업계획 및 평가, 전문여성기능인 양성, 여성농업인교육, 건전한 가정경영지도, 농촌여성의 소득증대사업의 지원, 농가주거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보전, 농업인건강관리지도, 농작업환경개선기술보급, 한국형식생활 정착지도, 농산물가공조리 및 저장기술보급, 농촌생활문화 계승발전지원, 농촌여성조직육성 및 지원, 농촌여성정책관련 유관단체와의 협력, 여성농업인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수행업무는 <표 8>과 같다. 주요 업무내용은 1. 여성능력개발로서 과수전정, 과일선물포장, 국화·철쭉등의 삽목기술, 분재가꾸기, 수형잡기 등으로 여성이 집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2. 생활개선회활동지원은 장아찌류, 폐백음식류, 가공식품류, 꽃꽂이작품, 숯공예품 등을 전시하고 상품화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와 교환하는 전시회이다. 3. 저소득 불우이웃 노인을 찾아 청소, 빨래, 밑반찬 만들기, 소년소녀의 가장에 대해 자매결연을 통한 학비지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표 8> 생활환경담당 업무내용

| 수행업무 | 내 용 |
|---|---|
| 농촌생활환경 사업계획 및 평가 | 여성농업인정보화시범, 여성농업인정보화교육, 남도사이버연구회육성, 생활개선시범사업,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공동휴식터조성 친환경 화장실설치 |
| 전문여성기능인 양성 | 생활과학기술교육, 여성능력개발교육, 생활대학운영 |
| 농촌가정경영및농촌여성의소득기술보급 | 생활원예반교육, 생활개선반새해영농설계교육, 가계부기록지도, 가정경영능력개발교육,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 생활환경보전운동, 생활환경지키기교육 |
| 농촌의식주 생활개선 | 우리음식연구회육성, 요리경진대회참가, 쌀음식문화교육, 전통폐백요리강좌 |
| 농업인건강관리실 및 농작업환경개선 |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시범 및 기술교육 |
| 농산물가공조리 및 저장기술보급 | 농산물가공기술교육 |
| 농촌생활문화 계승발전지원 | 생활개선풍물패육성, 향토음식발굴 |
| 농촌여성 조직육성 및 지원 | 생활개선회육성, 농촌여성지도자양성교육, 선진현장학습 |
| 생활개선 시범마을육성 | 전원농촌시범마을교육 및 시범마을가꾸기지도 |

자료: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V. 농업기술센터의 지역사회 역할 증진방안

## 1. 조직의 변화

### 1) 지도대상의 변화

농민층의 분화는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농민층을 구분하여 보면, 농업생산에 적극적인 전업농, 기업농, 가족농, 귀농이 있고, 다소 농산물의 생산에 소극적인 영세농, 겸업농, 여가농 등이 있다.

이와같은 농민층의 분화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지도가 기술지도의 대상에 대한 변화와 농업기술지도의 방법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생산에 적극적인 계층에서는 농업의 기술지도가 단순한 생산만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기능에 더하여 농업의 변화에 따라서 가공, 저장 등의 물적 유통과 상적 유통의 판매, 정산 등의 부분에도 One-Stop-Service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젠 농업인도 산업인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인식을, 농업인은 타부분에 취업을 할 수 없어서 수행하는 자급농업이라는 개념을 바꾸어, 영세 소규모 영농규모를 가진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시·군에 등재하도록 하여 시·군민으로서 농업을 사업으로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하여야한다. 따라서 농업인으로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종전의 농촌지도사업이 중앙의 농촌진흥청 업무를 전달하고 교육, 보급하는 획일적인 기능에서, 앞으로의 기능은 농촌지도사에게 세계농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농업인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예리하고, 세심한 농업의 미래에 전개될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농업지도사업의 방향과 지도방식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 2) 농촌지도사의 전문성 요구

농업생산에 적극적인 농민층은 농업기술에 전문성을 갖추고, 생산과 유통, 판매에서 기업가적인 농업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농을 비롯한 전업농 등은, 이제 농업생산이 단순한 농업기술에 의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명제를 인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가장 좋은 품질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배송하는 경영체계를 정립하는 생산, 유통, 판매에 있어서 기술창조적인 기업가로 변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농업기술의 정보를 대학이나 연구기관, 국내외를 불문한 선진지 견학, 농협, 농업기술센터, 도매시장, 인터넷 등의 다양한 정보처를 통하여 앞서가는 생산기술, 저장기술, 수송기술, 가공, 포장 및 판매기술 등을 익히고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실정은 농업인의 이러한 변화의 욕구와 의욕을 앞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따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생산의 영농지도나 기술지도라 하면 작목별로 영농기술이 분화되어 있는데, 시설원예를 비롯하여, 과수, 특용작물, 축산 등으로 작목이 많으나 이에 대한 개별 작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농업기술지도의 직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는 진보되고 선구적인 농민에 대한 농업기술보급과 아울러 노령화되고 새로운 농업기술의 수용에 대해 피동적인 자급농 또는 영세농에 대한 영농교

육 및 기술지도 등에도 관심을 기울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화된 농업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교육 대상에서 벗어난 대상으로 인식하여 선진기술을 각자의 농업인이 알아서 습득하라고 하면, 이에 대한 선진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중진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및 영농교육은 기술교육 및 영농교육으로 한정되고 있어서 이러한 기술의 전수가 농업수익으로 나타나지않는 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후진농업인에게 영농교육 및 기술써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영농에 대한 의욕저하와 노령화 등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영농기술교육 등에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이에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기술써비스 수행에 있어서 영세농, 중농, 대농으로 계층을 구분하여, 농업기술의 기술수준의 높이고,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판매에 있어서 전체 과정에 대한 일관된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는 물류관리사, 판매사 등의 인원을 확대하고 충원하고, 농업인에게 기술교육 및 영농교육을 농업인별·기술수준별로 무상과 유상의 생산·가공·유통의 기술써비스를 실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3) 농촌지도사의 감축 및 조직개편

1997년 1월에 국가직이었던 도·시·군의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외형상 단절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즉, 농림부 산하의 농촌진흥청, 시·도지사의 산하에 농업기술원, 시장·군수의 산하에 농업기술센터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시장·군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임명하는 조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등의 업무에 있어서는 도·군의 행정기관과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기관의 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이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련하여 내부인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외부인 군청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내부통제력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의 농업인 상담실이 없어짐에 따라 일선 영농현장의 정보수집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에 있다.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이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선 농촌지도사들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이제까지 농업기술의 무상써비스 기능만으로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유·무상써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농민층의 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영농을 실시하는 농가에게는 영농정보비, 선진기술개발비, 연수비 등을 지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익사업으로 기계화영농단을 인수하여 농업기계수리 및 임대료를

받고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여 주며, 농업지도사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전수자, 판매사, 선별사, 기능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농업인이 필요하는 곳에 유·무료로 파견하여 기술을 전수하고 써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가 중앙조직의 개편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축소하여, 지시와 관리를 하는 농민의 지도기관이 아니라, 직접 영농활동을 수행하면서 농민과 밀착된 사업을 수행하는 조력기관 및 상담기관으로서 역할의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 2. 업무 및 인식의 변화

### 1) 농촌지도기능의 재확립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기능 정립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역특성화 사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하며, 도시민과의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생산·저장·가공·포장·수송·판매 등의 기술전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농업인에 대한 상담과 조언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대상을 농민층별로 선별하여 지도해야한다. 농민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술지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도대상에 따른 적절한 지도전략 및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업농 및 특수작목 경영농업인은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최신 영농기술 및 저장·가공·판매 등의 기술정보자료를, 사이버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관련기관과 단체와 연계된 협력지도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품목별로 조직된 농업인과 일반 농업인에 대해서는 연구모임을 통한 회원 또는 조직간의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사례를 익히도록 하고, 시범사업,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신기술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의 생산기술 만을 전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저장·가공·수송 등의 물류부분과 판매를 위한 상류부분에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농외취업을 위한 농업기능기술을 지도할 수 있어야한다.

### 2) 농촌지도사의 의식전환

21세기의 농촌지도사업은 20세기의 농촌지도사업과는 구별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은 지금도 1970년대의 모든 농촌 주민에게 농촌지도의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을 지도

사업의 방향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IMF체제 이후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농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제는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한다. 지방화시대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양된 것으로 농촌지도사를 파악해서는 안된다.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이었을 때는 농민들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발방향을 정하고 이를 공무원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 농업인 가운데는 자신이 원하는 생산, 가공, 저장, 유통, 판매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이나 대학, 농촌진흥청의 시험장 등을 찾아다녀 기술을 익혀도, 농업에서는 지역에 따른 특색이 나타나고 있어, 국가의 일률적인 지도로는 농민과 소비자의 욕구를 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로는 지역 농민의 기술적인 욕구를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화시대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따라서 중앙의 농촌진흥청은 지방의 농업기술센터가 지역주민의 필요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농업기술센터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변화되어야한다.

### 3)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농업기술센터는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농촌지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농업의 기술, 정보 중심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여 농업인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여야한다.

이를 위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고품질 농업의 실현과 농산물수출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한다. 이때, 농촌의 농업기술지도의 주체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협력기관으로 농협이나 민간연구소, 농업관련회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학 등에서도 지도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도주체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농업기술만을 이전하는 단계에서 영농현장에서의 애로기술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농민조직을 육성·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농업기술지도의 대상을 농업인 위주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주민과 도시의 소비자도 농업기술지도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농업을 이해하고 식품의 품질선별과 안전성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운영방식과 변화방향을 고려하면, 첫째, 식량생산 및 환경농업 등의 국가적인 지도사업과 지역농업과 관련된 지도사업을 차별화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품목의 개발과 이에 따른 농촌지도사의 담당직무의 전문화가 요청된다.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품목의 선정을 통하여, 지역특산품으로 브랜드화하고, 수출을 목표로 하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농가의 작목반이나 작목별 연구모임 등의 협업체에게 원가절감을 위하여 공동생산, 공동방제, 공동출하 등을 지도·육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환경의 변화와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대면접촉 중심의 농업기술지도방법을 지양하고,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접촉을 통하여 영농의 현장애로 중심의 지도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연구의 개념을 생산기술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저장, 물류, 판매 등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현장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지원하여 주는 한편, 농업경영인의 행정 및 기술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건축, 기계, 저장, 수송, 포장 등을 농업인이 수행하는데 품목별, 분야별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Ⅵ. 요약 및 결론

우리 사회는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계층이 시대별로 구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해방기의 부류, 6.25시대부류, 경제성장기의 부류, 4.19의거부류, 5.18시대의 부류, IMF시대 부류 등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소비나 생산에 대한 관념, 중요성, 또한 여러 가지이다.

이처럼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의 소비자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을 담당하는 공익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역시 또한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행정경영의 시대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생산의 주체인 지역의 농업인은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잘 살아보려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을 배워 농업투자를 확대하고, 농업기술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종 영농기술교육에 참여하기도 하며, 농기계를 구입하여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농사를 지어보았지만, 남은 것은 부채 뿐이라는 목소리만 아우성이다. 따라서 농업인은 국가에 신용을 보증하여달라, 부채를 경감해달라는 등의 목매인 눈물의 호소를 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르러 문제는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 및 영농지도를 담당하고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빈농층에 대한 기술지원도 하여야 하지만, 대농층이나 기업농층의 선진농업인에 대한 기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영세농층만, 중농층만, 대농층만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이나 영농교육을 실시하면 민원의 소지를 항상 안고있는 실정에 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는 기술교육 및 영농기술교육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교육 및 영농교육이 농업인에 대한 소득증대로 효

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하는 영농교육 및 농업기술교육 등에 대하여 의심과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변화하는 시대와 농업인의 욕구, 소비자의 욕구, 지방행정의 욕구를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모를 기획해야 한다.

1. 농업의 생산목표를 자급영농의 실현에서 수출농업으로 모색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선진농업인, 중진농업인, 후진농업인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지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 영농교육이나 기술교육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농업인을 대신하여 논·밭의 현장에서 농기계로 이앙·제초·중경·병해충방제·수확 등의 일관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서도 보았듯이 일부의 업무는 21세기의 자율적인 농업인에 적합한 업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농업인을 이제 산업인으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시대를 지나 지식·정보시대에 개별 및 산업으로의 농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에 농업인도 일반 사업체와는 특수한 입지를 인정하는 사업신고제도를 두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익사업을 하여야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을 농업인에게 교육하지만, 그 영농기술과 농업교육이 과연 농가의 소득과 연결이 되고, 하자없는 농업기술인지 그리고 그러한 농업기술을 농업인이 수용하였을 경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영농기술교육을 수용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보상제도를 실시해야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가 바로 농업인이 수용하여 수행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경제적으로 산정하여 손실부분에 대하여는 보존하여주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의 영역을 농산물 생산에 있어, 영농비의 절감을 위하여 농자재의 공동구입, 공동생산, 영농기계반의 흡수에 의한 기계의 효율적 이용측면과, 농산물의 공동판매를 위한 유통시스템의 구축과 아울러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의 알선 등의 유통활동으로 나누어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애로기술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업인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정환외, 신물류경영, 문영각, 2000.
옥선종, 물류관리론, 경록, 2000.
이동열, 세계화시대 물류혁신전략, 2000.
이승훈, 미시경제학, 영지문화사, 1990.
홍기용, 지역경제론, 박영사, 2000.
한국농촌지도학회,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7권제1호, 2000.6.
한국농촌지도학회,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7권제2호, 2000.12.
한국농촌지도학회,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6권제1호, 1999.6.
Martin Christopher, Logistic and Supply Chain Management, 21CBooks, 1995.